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 주임신부 : 권지훈(베드로)
- 사목회장 : 김성연(야고보)
- 사 제 관 : (808) 422-1040
- 사 무 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 <https://standrewkimhawaii.org>

제2282호

2026년 1월 4일(가해)

미사 안내	평일	화, 수, 금 : 오전 10:30 목 : 오후 7:00 (성체 강복: 매달 첫 번째 목요일 7시 미사 중)	주일	토 : 오후 4:00 일 : 오전 06:30, 10:30 오후 4:00 (St. Peter & Paul 성당, 매월 셋째 주 마우이 공동체 오후 2:30)
연령회	병자성사,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 환자 또는 망자 발생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 연령회장: 김미아 헬레나 (808) 291-7811			



오늘의 미사

주님 공현 대축일

▶ 1독서 : 이사야서 60,1-6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화답송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 2독서 : 에페소서 3,2.3-5-6	▶ 복음 : 마태 2,1-12

성가 ▶ 입당: 485 ▶ 봉헌: 211, 210 ▶ 성체: 504 ▶ 파견: 487

① 1월 18일(일)은 Peter & Paul 성당 파견 미사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② 1월 18일(일)은 마우이 공동체 미사(오후 2:30)가 있습니다.

(St. Anthony Church - 1627 Mill St. Wailuku, HI 96793)

③ 1월 봉성체 안내

1월 봉성체는 1월 15일(목, 오전) 서쪽 지역, 1월 16일(금, 오후)
동쪽 지역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④ 매월 셋째 주 '화해와 일치 주간' (1월 18일~24일)

⑤ 매월 넷째 주 1월 25일(일) '한끼 나눔'

⑥ 미사 참석시 명찰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사목공지



사목위원회

※ 교육분과 공지

교리교육

• 12월 28일 & 1월 4일: 휴강



구역 및 단체

① 성령기도회 모임

일시: 1월 4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② 사목회 모임

일시: 1월 4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새신자 교리실

③ 다락방 모임

일시: 1월 11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컨퍼런스룸

④ 가이무키 구역모임

일시: 1월 11일(일) 5시

문의: 황마리아 220-0822

⑤ 솔렉 구역모임

일시: 1월 13일(화) 3:30

장소: 새신자 교리실8

문의: 이명노 비오 227-5630

※ 평화신문 김찬미 가비노 신부님 방문 (1월 10-11일 주님세례축일)

북미주 평화신문 지사장이신 김찬미 가비노 신부님께서 평화신문 구독 홍보를 위해 우리 본당에 방문하십니다. 신자분들께서는 가톨릭 언론 선교에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공지

※ 연령회비 납부 안내

2026년 연령회비를 접수받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각 단체나 구역회 모임에서 오하나 센터 회의실, 키친 뒷마당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 사전에 사무실에 통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헌금

1월 24/25일 Church in Latin America and Black & Indian Missions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12월 27/28일: \$9,743 한끼나눔: \$2,410				지난주 미사 참례자 수	총 301명
	주일헌금	교무금	구유예물	특별헌금		
	\$3,257	\$4,650	\$195	\$1,641		

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 599-9810, 592-5011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자동차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	뷰티터치 (BEAUTY TOUCH) 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안나 Tel: 808-271-4802
New York Life 은퇴연금/학자금/투자/재무설계 차 그레고리오 808-226-3344	Ginzawon (긴자원) Korean B.B.Q (Waikiki) 문의: 김태영 안토니오 808-220-0768 808-922-3387	묘지매매 묘지: Korean Memorial Garden Lot 39 Section B Sites 1,2,3,4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심소영 / 808-798-5100

※ 미사: 참회 1

다섯 번째, 참회입니다. 시작 예식 중, 참회 예절은 미사에 참석하는 이들이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알게 된 자신의 죄를 마음을 다해 주님께 고백함으로써 용서를 청하도록 인도하는 예식입니다. 시작 예식 중 이러한 참회는 우리가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로마 미사 경본 총 지침 51항에서는 “참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제는 신자들에게 참회하도록 권고한다. 이 참회 예식은 짧은 침묵 시간을 가진 뒤 공동체 전체가 고백 기도를 바친 다음, 사제가 하는 사죄경으로 끝난다. 그러나 이 사죄경이 고해성사의 효과를 내지는 않는다.”

눈여겨 살펴볼 부분은 사제의 참회 권고 이후, 사제는 바로 기도에 들어가지 않고, 반드시 짧은 침묵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미사 경본에서는 분명히 “거룩한 침묵”의 때를 정해두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침묵이 아닌 하느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라 하여 “거룩한 침묵”이라고도 말합니다. 미사 안에서 신자들이 침묵을 통해 하느님을 만나는데, 각 예식에 따른 거룩한 침묵의 목적은 각기 다르게 적용됩니다. 로마 미사 경본 총 지침 45항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거룩한 침묵은 거행의 한 부분이므로 제때에 지켜야 한다.



알아둡시다

침묵은 각각의 거행에서 이루어지는 순간마다 그 성격이 다르다. 참회 행위와 기도의 초대 다음에 하는 침묵은 저마다 자기 내면을 성찰하도록 도와주고, 독서와 강론 다음에 하는 침묵은 들은 것을 잠깐 묵상하게 하며, 영성체 후에 하는 침묵은 마음속으로 하느님께 찬미 기도를 바치도록 이끈다.”이 지침에 따르면, 참회 예절 중에 잠깐의 침묵은 자신을 되돌아보아 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신자들은 침묵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초대 교회부터 참회 예식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느님과 반대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성찰하며, 성찰된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즉, 참회의 목적은 하느님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와 자비를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따라 시작 예식 중 참회 예식은 공동체에 소속된 나를 하느님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나의 부족함을 바탕으로 하느님께 자비와 은총을 청하는 것입니다. 특히 “모두 함께 고백 기도를 바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능동적으로 이 예식에 참여함은 예식을 뛰어넘어, 우리 스스로가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예절이기도 합니다.

※ 주님 공현 대축일 강론 요약본

오늘 우리는 주님 공현 대축일을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정한 민족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로 드러나신 사건을 기념합니다. ‘공현’은 하느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선포하는 축일입니다. 성탄이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신비라면, 공현은 그 하느님께서 누구를 위해, 어떻게 세상에 나타나 시는지를 보여 줍니다.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어둠과 폐허 속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고 외칩니다. 이 빛은 인간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에서 오는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민족을 끌어당깁니다. 하느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보편적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복음에서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로 실현됩니다. 메시아를 찾아 나선 이들은 성전의 사람들도, 율법 학자들도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별빛을 따라 길을 떠났고, 결국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합니다. 반면,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작은 빛을 믿고 나아가는 용기임을 보여 줍니다.

박사들이 만난 메시아는 화려한 왕이 아니라 연약한 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분의 참된 정체를 알아보고, 예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제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교회는 이 빛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별을 따라가는 사람을 넘어, 세상 안에서 별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떤 빛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 비추어라.”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설명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분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이 축일을 지내며,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을 경배하고, 변화된 삶으로 세상에 그분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권지훈 베드로 신부

ARBOR Financial Group NML# 236669

심소영: 주택융자담당
Cel:(808)798-5100
Email:sharis@arborfg.com

최 니콜 부동산

Locations,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메디케어 보험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광고 문의

사무실
808-422-1010

A'ALA Meat & Seafood Inc

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열 사무엘
samseo@aalameatandseafood.com

보나 최 부동산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